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북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서인선

전화 02-713-4866

보도자료 2023. 3. 16.(목)

제 목

매출조작·탈세·범죄은닉 목적 6,400억 대 허위계산서 수수 사범 엄단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(부장검사 정유리)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매출조작·탈세·범죄은닉 목적으로 총 6,4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,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시장 경제질서를 교란한 조세범칙 사범을 엄단함
 - ① 영업실적 조작하여 성과급을 취득하기 위해 10년 동안 6,0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기업 계열사 팀장 1명을 구속 기소, 가담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,
 - ② **탈세 및 작업대출 목적**으로 **22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**를 수수하여 **매출실적을 조작한 귀금속 유통업자 2명을 구속 기소**하고,
 - ③ 보따리상으로부터 면세 화장품을 대량 매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후 부가가치세 면탈을 위해 1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화장품 판매업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,
 - ④ 지역주택조합 자금 횡령을 숨기기 위해 정상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9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분양대행업자 1명을 구속 기소,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서울북부지검은 '21. 1. 조세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이래 조세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왔고, 향후에도 조세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여 국가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세범칙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음

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연혁 및 최근 성과

- '21. 1. 서울북부지검,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
- '22. 7. 기존 '조세범죄형사부'를 '조세범죄조사부'로 명칭 변경
- '22. 9. 검사 직접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모든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포함
- '22. 10. ~ '23. 3. 조세사범 총 15명 기소(4명 구속, 11명 불구속), 합계 6.400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엄단

대기업 계열사의 6,000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

1. 피고인

● AOO[51세, 정보통신업체 ㄱ법인(대기업 계열사) 팀장]

2. 공소사실 요지



-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자 성과급을 계속 취득할 목적으로 지인 소유 도관업체, 렌탈업체 간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'11. 12. ~ '21. 6.까지 총 1,350회에 걸쳐 6,0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[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)등]
 - ※ 도관업체 :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업체
 - ※ ㄱ법인은 허위 매출 발생을 위해 도관업체와 '모니터 설치 및 광고 플랫폼 서비스 계약'체결. 도관업체는 렌탈사에 모니터 등 장비를 실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고, ㄱ법인은 렌탈사로부터 실제 모니터 등 장비를 렌탈한 것처럼 가장. ㄱ법인 → 렌탈사 → 도관업체 순서로 대금 지급됨. 최종적으로 도관업체는 위 '모니터 설치 및 광고 플랫폼 서비스 계약'수수료 명목으로 ㄱ법인에 대금 지급.

3. 수사 경과

- '22. 3. 18. 서울지방국세청, AOO 고발, 조사과 조세범죄수사팀 지휘
- '22. 11. 7. AOO 구속 ☞ '22. 12. 1. <u>구속 기소(</u>가담자 1명 불구속 기소)
- '22. 12. 29. 가담자 5명, 3개 법인 각 불구속 기소

4. 수사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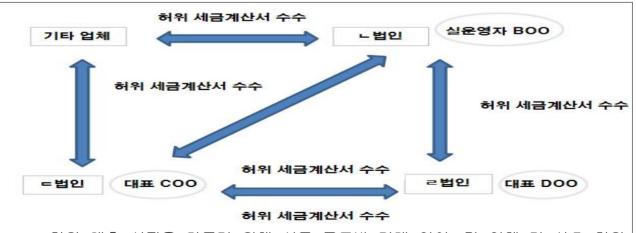
- 가. 중점청 직접 수사부서와 조사과 전담 수사팀의 긴밀한 협력 수사
 - 당청 <u>조사과 조세범죄수사팀에서 주소지, 범죄지 관할이 각각 다른 고발 사건</u> 8건을 집중 수사하여 여러 업체 간 거래관계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규명
- 나. 도주한 주범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구속
 - AOO은 '22. 3.경 잠적하였으나 조사과 조세범죄수사팀에서 끈질기게 행적을 추적하여 체포, 구속 기소

Ⅲ 귀금속 유통 업체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

1. 피고인

- **BOO**(55세, 총책, ∟귀금속 법인 운영)
- **COO**(56세, 공범, 드귀금속 업체 운영), **DOO**(52세, 공범, 르귀금속 법인 운영)

2. 공소사실 요지



※ 허위 매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실물 골드바 거래 없이, 각 업체 간 상호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(허위 매입·매출 증빙을 만들기 위해 골드바 구매대금 송금 후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음) ● 공모하여 무자료 금지금(골드바) 판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매입자료를 만드는 한편, 매출 실적을 늘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높은 가격으로 법인을 매각할 목적으로 '21. 1. ~ '21. 7. 실물 금지금 거래 없이 ㄴ, ㄷ, ㄹ 업체와 거래처 간 총 332회에 걸쳐 합계 226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[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

3. 수사 경과

- '22. 2. 3. 서울지방국세청, COO, DOO 등 고발
- '22. 7. 20. 총책 BOO 혐의 인지·고발의뢰
- '22. 8. 5. 총책 BOO 사무실 등 2곳 압수수색
- '22. 10. 14. BOO, COO 각 구속 ☞ '22. 10. 20. 각 구속 기소
 - >※ DOO은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,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 후 도주하여 전국에 지명수배

4. 수사 의의

가. 검찰 직접수사로 자료상 조직의 전모를 밝혀냄

● <u>주소지, 범죄지 관할이 다른 고발 사건을 검사가 직접수사</u>하여 국세청 조사 과정 에서 밝혀지지 않은 <u>총책의 범행 가담을 밝혀내고</u>, 공범과 함께 구속기소

나. 과학수사로 사건의 실체 규명

● 최초 고발된 공범들은 범행 부인하고 총책의 존재를 숨겼으나 <u>통신자료 확인</u>, 계좌 추적,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과학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 확인

다. 국세청과 유기적 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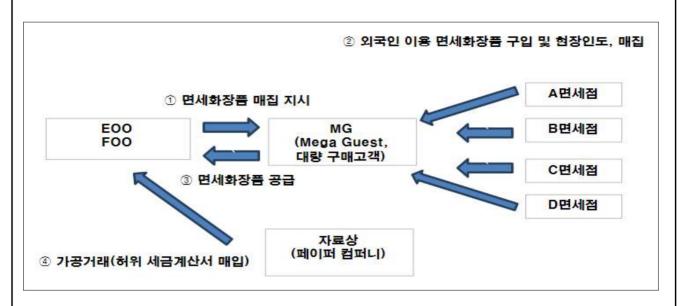
● 세무자료 분석 등 <u>서울지방국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</u>하여 조직적 범행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

V 화장품 판매업자의 면세 화장품 국내 유통 사건

1. 피고인

● **EOO**(34세, 화장품 판매업), **FOO**(34세, 화장품 판매업)

2. 공소사실 요지



- 공모하여 보따리상으로부터 국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면세 화장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후 부가가치세 면탈을 위해 '21. 6. ~ '22. 4. 자료상(페이퍼컴퍼니)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합계 1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[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
- 공모하여 '21. 10. ~ '22. 2. 면세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시켰음에도 정상적으로 해외에 반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파일을 7회에 걸쳐 조작하고 면세점에 전송하여 위계로써 [업무방해]

3. 수사 경과

- '22. 9. 서울지방국세청, EOO 등 고발
- '23. 1. 4. 공범 FOO 혐의 인지·추가 고발
- '23. 2. 23. EOO, FOO, 가담자 2인, 양벌규정 2개 법인 각 불구속 기소 ※ EOO, FOO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. 법원에서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

4. 수사 의의

가. 국세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기에 증거 확보

●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, <u>국세청 범칙조사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받아</u> 압수 수색을 실시함으로써 다수의 증거를 조기에 수집

나,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범죄 엄단

● 면세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여 <u>국내 소상공인에게 피해</u>를 주고,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민생침해범죄를 엄단

다. 추가 범행을 밝혀 엄정 대응

● 면세품 해외 반출을 가장하기 위해 <u>수출신고필증 파일을 변경하여 제출한 추가</u> 범행까지 밝혀 기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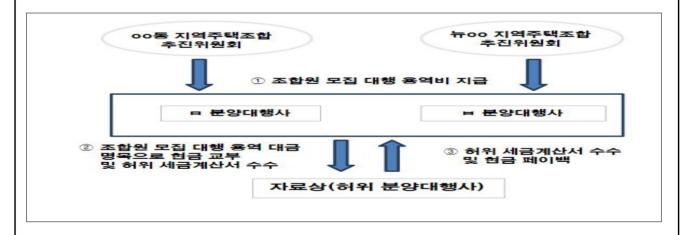
V

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운영자의 조세포탈 및 횡령 사건

1. 피고인

- **GOO**(65세, 지역주택조합 ロ, ㅂ 분양대행사 운영)
- **HOO**(63세, 위 분양대행사 실무 책임자)

2. 공소사실 요지



- 공모하여 '18. 5. ~ '21. 1. 지역주택조합이 □, ㅂ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용역 대금 약 47억 원 상당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, 분양 대행사 회계에서 허위 용역 대금과 급여를 출금하고 돌려받기를 반복하여 횡령 사실을 은폐 [특경법위반(횡령), 범죄수익규제법위반]
- 공모하여 '18. 4. ~ '21. 3.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실제 용역업체와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총 76회에 걸쳐 합계 93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[특가법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
- '19. 1. ~ '20. 3. 부가세 및 법인세 합계 5억 원 상당 포탈 **[조세범처벌법위반]**

3. 수사 경과

- '21. 5. □, ㅂ 분양대행사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 업체 사건, 검찰 송치
- '22. 7. GOO, HOO 혐의 인지·고발의뢰, GOO 소유 부동산 추징보전
- ※ 국세청은 고발의뢰 범죄사실 외 추가 조세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까지도 조사하여 신속히 고발
- '22. 10. ~ 12. GOO, HOO 각 구속영장 청구
- ※ GOO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 후 도주하였으나 추적하여 '23. 2. 27. 검거· 구속(HOO은 법원에서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)
- '23. 3. 7. GOO 구속 기소, HOO 불구속 기소

4. 수사 의의

가. 치밀한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 파악

● 관련 업체 송치 사건의 검사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단서를 찾아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범행의 실체 파악

나.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범죄 엄단

●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<u>지역주택조합(추진위원회) 조합원들의 분납금을</u> 착복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엄단

다. 도주한 주범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구속

● GOO은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으나 <u>검거조를 편성</u>하여 2개월 간 <u>추적 후 검거</u>

라. 범죄수익에 대한 신속한 동결처분

● GOO 소유 15억 원 상당 부동산에 대하여 <u>추징보전 조치</u>하여 범죄로 얻은 수익을 신속히 동결처분함

VI 향후 계획

● 향후에도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 및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기업형 자료상 등 조세범죄에 엄정대응할 예정임. □